

# 기 조 연 설

金 聖 鎭 한국전산원장



- ▲미국 플로리다대학 기계공학 박사
- ▲체신부장관
- ▲과기처장관
- ▲과학재단이사장
- ▲한국전산원장(현)
-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 위원장(현)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국내 전산인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전산망 기술 및 기자재의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사업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정부당국과 이 분야의 많은 선각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많은 발전을 보아왔으며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전산망 분야의 표준화는 정보화사회의 급격한 도래와 관련기술의 빠른 변화 때문에 그 대상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어 가고 있을 뿐더러 미처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소프트웨어, 기자재, 통신 등의 각 부문에서 혼돈과 대립 속에 부분적인 대책만이 취해져 온 것이 현실이다.

표준화가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긴요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획득을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까닭으로 해서 선진제국의 기업과 정부는 상대적인 우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준화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속박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작은 나라의 독자적인 표준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표준화는 진행되어 나아갈 것이 분명하고 일단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이미 진행된 사항들을 다시 수습하기란 흠어진 물을 다시 쓸어담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전산망의 표준화는 추진해야 되고 지금이 그 시기라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그간 국내 전문가, 기업 및 관련기관에서 검토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첫째, 본격적인 전산망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확보

둘째, 연구활동 및 국제표준기구에의 참여 활성화  
세째, 인력 및 예산의 확보

세가지이며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므로 어느 한 기구나 소수의 인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각계의 의견이 수립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 때문에 산업계, 학계 및 정부의 협력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관계당국간에 협의된 기능분장과 중장기 판단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마련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조직을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고, 보급대책을 세우고, 연락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할 일로는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계획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표준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화시키고 산업체, 단체, 연구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연구 및 표준안의 제정작업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분담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 및 산업계에서 지원받아 배정하고 연구성과와 국제표준기구로부

터 입수된 정보를 전파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전산망 관련 표준화 사업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많은 인원들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집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가량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의 업무가 효과적이려면 책임과 함께 법적인 지위의 확보와 예산 등 수단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 누가 어떠한 지원하에 이와 같은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그간 우리의 전산망 관련 표준화 업무는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온 것 외에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개인적인 정열과 희생으로 부분적인 노력을 해온 것이 전부였으며 관련 연구단체들의 외침은 있었지만 실체화를 위한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상태를 연장하게 할 수만은 없는 주변환경의 압력들이 밀려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그 하나이다. 전자산업 부문의 교역량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함에 따라서 선진 각국은 한국을 실제 이상으로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 등에서 한국이 보다 큰 발언권을 가지고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이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 어느 거대기업도 이 지구공동체의 합의된 표준을 무시하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많은 고급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CCITT, ISO, IEC 등의 국제기구와 각 지역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다투고 있으며 OSI, X-OPEN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 기술기준 한가지를 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말썽이 일고 있는 현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준화 작업에 눈을 감고 있어도 될리가 없다. 거기에서 정해지는 기준들이야말로 우리의 생존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산업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정보통신의 개방화 추세가 또한 그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날 공업화의 과정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표준화 사업을 전개하여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는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기술문명의 문턱을 넘고 있다. 아마도 해야 할 일의 규모는 과거의 공업화 과정에서보다 더 방대할 것이다. 20

년 전에는 남들이 200년간 해오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 그만이었다. 변화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해도 큰 탈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태가 달라졌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방안을 연구하여 합의한 후 신속히 전파하지 못하면 큰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 확보, 국가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국민의 편익증진 등 중대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표준화사업에 걸려 있다. 이제는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확신한다.

표준화의 추진에는 표준연구단체, 산업계 및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 못지않게 중요한 추진의 주체는 우리의 기업들이라고 여겨진다.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만 아니라 추진을 위한 수단을 가진 것이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추진력과 관리능력, 투자능력, 전세계에 뻗어 있는 사업망, 이러한 능력들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도하여 체신부, 과학기술처, 공업진흥청 등의 정부기관의 후원 아래 국내 산업계와 학계가 망라된 대규모의 정보통신 표준화 프로젝트가 오늘의 모임을 계기로 발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보통신진흥협회에 감사드리며 회의의 성공과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